

# 방위비 분담·통상 압력 거세지고 북핵 제재 기조 당분간 유지

## 트럼프 20일 취임...한미관계 전망

20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다소간 진통은 있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큰 출렁임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각종 현안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해 자칫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통상압박 거셀 듯**=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선택적 개입을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대외정책의 기조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도 이런 맥락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일단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렉스 티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미국의 안보이익과 아태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클 풀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각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안보

## 분담금 협상 난항엔 갈등 확산

### FTA 재협상 현실화 할 수도

### 사드·개성공단도 연착륙 변수

무임승차론과 함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 밝히는 등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통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을 조래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취임 후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통상 압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자칫 한·미 관계가 반미감정을 자극, 예상치 못한 난란으로 불길



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갈등이 다른 동맹 사안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권 조기 전환에 더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마저 시사한 바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나 향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각종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막아내든 우리 정부나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핵공조 순항 전망...美 옵션 꺼내면 마찰도**=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무·국방·CIA(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 등도 의회 인준절차와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를 "심각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군 출신의 강경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안보라인이 강경 기조를 넘어서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갈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마찰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전쟁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초강경 조치인 만큼 박근혜 정부 이후 앞으로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사

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압박카드를 꺼낸 '하나의 중국' 흔들기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 내부변수도 갈등요소**=트럼프 변수' 못 지않게 우리 내부의 변수도 폭발력이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사드나 북핵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 시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대화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과거·재협상 주장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한일관계를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월마트·GM "일자리 1만1500개 창출"

### 美언론 "트럼프 눈치...면피용 생색내기" 비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와 자동차 제조사인 GM이 17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 1만 개와 1500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밝혔다.

월마트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은 올해 건립 예정인 신규 매장 59곳과 전자상거래 서비스 부문에 이뤄질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전했다.

GM도 올해 미국 내에 10억 달러(1조 2000억 원)를 투자해 일자리 1천500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GM의 신규 투자는 새로운 자동차 생산과 첨단기술, 부품 개발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월마트와 GM의 이 같은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요구에 따른 '면피용 생색내기용'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비판했다. 특히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국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월마트와 GM의 일자리 창출은 하찮은 것"이라며 "월마트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150만 명이며 올해 1% 미만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월마트가 당장 이번 달 말 분사 인력을 최대 1천 명까지 감원할 계획이며 새로 건설되는 매장 수도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겨냥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던 나이지리아 공군 소속 전투기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실수로 동북부 보르노주 칼라발게 란(Rann) 지역의 한 난민촌에 폭격을 가했다. 이번 오폭으로 "난민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구호단체 직원들이 다쳤다"고 보르노주 정부 관리가 밝혔다. 사고 현장 주변 바닥에 부상자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 나이지리아군 난민촌 오폭 100여명 사망

### 보코하람 겨냥 군사작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을 겨냥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던 나이지리아 공군이 난민촌에 폭탄을 잘못 투하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공군 소속 전투기가 이날 오후 실수로 동북부 보르노주 칼라발게 란(Rann) 지역에 있는 한 난민촌에 폭격을 가했다.

이번 오폭으로 "난민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구호단체 직원들이 다쳤다"고 보

르노주 정부 관리가 밝혔다. AFP 통신은 국경없는의사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는 "사망자 중에 자원봉사자 2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상자 수에서 혼선이 있지만 나이지리아군도 이러한 오폭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나이지리아군의 럭키 이라보르 소장은 카메룬과 국경을 맞댄 동북쪽 란 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있었다며 부상자들은 민간 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와 나이지리아 민간인과 군인들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英·EU '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기싸움

### 메이 총리, 완전 탈퇴 선언

### 獨부총리 "탈퇴 절차 지켜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하드 브렉시트 스케치를 천명한 것이 직접적 계기다. 하드 브렉시트는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메이 총리의 이날 연설에 가장 뾰족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었다. 협상의 키플레이어 국가인 독일의 대연정 남파2이자 실물경제 사령탑인 가브리엘 부총리는 협상에서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협상이 시작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메이 내각이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를 발동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 행배가 좀더 명료해 졌다고 평가하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오는 2월 말 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오르는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 교통관은 마침내 영국이 밀그림을 내놓고 계획을 분명하게 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슈타인마이어 장관 역시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혀야 협상은 시작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문제를 지적했다. 독일 대연정은 집권 다수인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집 요구로 18일 내각회의를 마치고 브렉시트 협상 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EU 27개 회원국은 단결하고, 50조 발동 이후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썼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도 질서정연한 탈퇴야말로 EU와 탈퇴 이후의 영국 간 협력관계의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좋은 협상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하드 브렉시트가 분명해진 것은 맞지만 "영국의 계획은 약간 모호하다"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교역, 이민자 전면 통제...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것 말고 주겠다는 건 어디 있나"라고 영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연합뉴스

111을 기억할때 국가안보의 빈틈은 사라집니다  
간첩·테러·국제범죄·산업 스파이 신고는 '111'

###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전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 상가매매 전문

- 수원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점)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여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매가 22억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매가 1억4천만 (용5천)
- 상수지구 오피스텔 매매 상수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매가 6천9백만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 상수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수나이트열,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2억4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약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물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 첨단지구 식당임대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전문 앞

**커피숍 임대 전대 전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 120만평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 ※ 1필지 200평 - 1억 투자시 가능

☎ 062-511-7800 010-6832-9700